

Correlation among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Local Residents in Yeongdo-gu

영도구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 공감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Heeyoung Jung¹, Jung-ha Park², Yeon Hee Lee³, Young-chul Choi⁴, Moon Hui Kim⁵

정희영¹, 박정하², 이연희³, 최영철⁴, 김문희⁵

¹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Korea, hs9650101@naver.com

²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Korea, suha2002@gdus.dongseo.ac.kr

³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Korea, vandi@deu.ac.kr

⁴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 Busan Women's College, Korea, cyc18324@gmail.com

⁵ Director, Bumin Senior Welfare Center, Korea, hoddukgongju@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Jung-ha Park

Abstract: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 by leaps and bounds,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o develop a customized communication program for local resi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residents living in area Y of B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193 research participants were those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15 to May 10, 2023.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BM SPSS/Version 27.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average score for alexithymia was 1.78 ± 0.51 points, empathy was 2.82 ± 0.54 point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3.34 ± 0.48 points. The alexithymia h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r = -.194, p < .001$), and empathy ($r = -.392, p < .001$). Empathy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r = .597, p < .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that allows local residents to recognize their emotions, express their needs, and communicate with empathy. In addition, a follow-up study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rogram in the long term through the policy support an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s suggested.

Keywords: Alexithymia,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Residents

요약: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지역주민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Received: May 13, 2023; 1st Review Result: June 18, 2023; 2nd Review Result: July 19, 2023
Accepted: August 25, 2023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의 대상은 B 광역시 Y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총 193 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 년 4 월 15 일부터 5 월 10 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Version 27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정표현 불능은 평균 2.8 ± 5 점, 공감능력은 평균 2.8 ± 5 점,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3 ± 5 점이었다.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정표현불능과 의사소통능력은 부적 상관관계($r = -.327, p < .001$)로 나타났다.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정적 상관관계($r = .626, p < .001$)로 나타났다. 정서자각 곤란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 = -.213, p < .01; r = -.361, p < .001$)이었고, 정서표현 곤란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 = -.332, p < .001; r = -.476, p < .001$)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욕구를 표현하며 공감으로 양질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핵심어: 감정표현불능증, 공감, 의사소통능력, 지역주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1].

지역을 떠나려는 주민을 남아 있게 하려면 그 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서비스의 공동생산이 요구된다[2].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대 간의 소통은 물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과 지자체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고받는 쌍방향의 소통이 필요하다.

지역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여 상황에 따라 정서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서표현의 억제는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3], 이중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할 경우 정서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구성되지 않아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표현하지도, 조절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4]. 정서표현은 문화적 관습과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기 때문에[5] 그 수준은 문화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의 감정표현불능증이 높게 보고된다[6].

또한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 있으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대별 의사소통 변화되어[7] 다양한 연령층이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 갈등을 겪고 있다[8].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8].

이에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며[9],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능력이다[7]. 즉, 타인의 경험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감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 상대방의 내적 동기를 격려하는 공감의 과정을 통해 개인이 세상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10].

김혜진과 이동훈[8]은 개인이 지닌 우세한 문화적 성향과 세대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은 다를 수 있으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들은 의사소통 불안이 높고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적 성향이 비슷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더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능력이 다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의 단계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성향과 세대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와 지역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B시의 Y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소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 시의 Y 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설문조사 당시 B 시의 Y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응답 방법, 그리고 비밀이 유지됨을 설명하였고,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읽고 응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는 설문조사자가 직접 읽어주면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는 0.26,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의 크기는 13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배포된 설문지는 총 206부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13부를 제외한 193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정표현불능

감정표현불능 측정 도구는 선행 논문을 기반으로 Yun[11]이 TAS-20K의 차원성검증 연구에서 추천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자각 곤란(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IF) 7문항과 정서표현 곤란(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DDF) 5문항의 2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자각 곤란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 정서표현 곤란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 상태를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는 Yun[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0$ 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 측정 도구는 Yoe[12]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단일 요인 구조로 된 한국판 단축 공감척도(Empathy Quotient Short Form, EQShort-K)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e[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3.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 도구는 Rubin과 Martin[13]의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S)를 Hur[14]가 수정, 보완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과, 반응력, 잡음 통제력에 대한 역문항 2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7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50.3%, 여자 49.7%이고, 연령은 70-80대 39.4%, 30-40대 23.8%, 20대 20.2%, 50-60대 16.6%의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 36.8%, 중졸 이하 33.2%, 대졸 이상 30.1%이었다. 거주 기간은 30년 이상 42.0%, 10년 미만 30.0%, 10년 이상-20년 미만 16.6%, 20년 이상-30년 미만 11.4%의 순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 (N=1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97(50.3)
	Female	96(49.7)
Age	20's	39(20.2)
	30's to 40's	46(23.8)
	50's to 60's	32(16.6)
	70's-80's	76(39.4)
Education	Lower than middle school	64(33.2)
	High school	71(36.8)
	College graduation or higher	58(30.1)
Duration of residence(year)	<10	58(30.0)
	≥10, <20	32(16.6)
	≥20, <30	22(11.4)
	≥30	81(42.0)
Subjective health status	1-3	13(6.7)
	4-7	99(51.3)
	8-10	81(42.0)
Subjec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1-3	8(4.1)
	4-7	82(42.5)
	8-10	103(53.4)

3.2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도

[표 2]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도 (N=193)

[Table 2] Level of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N=193)

Variable	Range	Min	Max	M(SD)
Alexithymia	0-4	0.20	2.90	1.78±.51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0-4	0.00	3.29	1.37±.78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0-4	0.00	3.20	1.66±.71
Empathy	1-5	1.00	4.00	2.82±.54
Communication competency	1-5	1.53	4.33	3.34±.48

본 연구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은 $1.78 \pm .51$ 점이고, 하부 항목인 정서자각 곤란은 $1.37 \pm .78$ 점, 정서표현 곤란은 $1.66 \pm .71$ 점이었다. 공감능력은 $2.82 \pm .54$ 점, 의사소통능력은 $3.34 \pm .48$ 점이었다[표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차이 (N=193)

[Table 3] Differences in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Alexithymia		Empathy		Communication cpmpe	
		M(SD)	t or F(p-value) Scheffe's	M(SD)	t or F (p-value) Scheffe's	M(SD)	t or F (p-value) Scheffe's
Gender	Male	1.74(.52)	-1.080(.281)	2.81(.55)	-.230(.818)	3.34(.48)	-.071(.943)
	Female	1.81(.50)		2.83(.53)		3.35(.48)	
Age	20's	1.85(.51)	1.659(.18)	3.00(.40)	2.102(.10)	3.44(.36)	1.9(.14)
	30's to 40's	1.70(.61)		2.84(.54)		3.34(.49)	
	50's to 60's	1.66(.39)		2.78(.58)		3.44(.43)	
	70's-80's	1.84(.49)		2.73(.57)		3.25(.53)	
Education	Lower than middle school ^a	1.91(.48)	5.469(.005)	2.70(.62)	3.266(.040)	3.22(.55)	3.476(.03)
	High school ^b	1.80(.46)	c<a	2.83(.54)	a<c	3.38(.44)	a<c
	College graduation or higher ^c	1.61(.56)		2.94(.41)		3.43(.41)	
Duration of residence(Year)	≤ 5	1.78(.55)	1.068(.37)	2.88(.49)	.416(.80)	3.39(.44)	1.348(.254)
	≥ 5, <10	1.80(.50)		2.71(.42)		3.38(.41)	
	≥10, <20	1.65(.57)		2.81(.49)		3.36(.42)	
	≥20, <30	1.68(.51)		2.88(.52)		3.50(.47)	
	≥30	1.85(.46)		2.79(.61)		3.26(.53)	
Subjective health status	1-3 ^a	2.00(.65)	8.399(<.001)	2.44(.68)	4.249(.016)	2.80(.58)	13.057(<.001) a<b<c
	4-7 ^b	1.89(.45)	c<a	2.81(.57)	a<c	3.31(.45)	
	8-10 ^c	1.61(.52)		2.90(.54)		3.47(.43)	
Subjec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1-3 ^a	8(4.1)	4.87(.009)	2.26(.73)	8.215(<.001)	2.87(.83)	10.814(<.001)
	4-7 ^b	82(42.5)	c<b	2.73(.57)	a<c	3.23(.42)	a<c, b<c
	8-10 ^c	103(53.4)		2.93(.46)		3.47(.44)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른 감정표현불능은 유의하였다($F=5.47, p=.005; F=8.40, p<.001; F=4.87, p=.009$).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하였다($F=3.27, p=.040; F=4.25, p=.016; F=8.22, p<.001$).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하였다($F=3.48, p=.030; F=13.06, p<.001; F=10.81, p<.001$).

3.4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감정표현불능은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194, p<.01; r=-.392, p<.001$)이었다.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r=.597, p<.001$)이었다. 감정표현불능의 하부 항목인 정서자각 곤란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213, p<.01; r=-.361, p<.001$)이었고, 정서표현 곤란은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r=-.332, p<.001; r=-.476, p<.001$)이었다.

[표 4]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N=193)

[Table 4] Correlation among Alexithymia,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Local Residents (N=193)

Classification	Alexithymia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y
Alexithymia	1				
Difficulty identifying feelings	.907***	1			
Difficulty describing feelings	.796***	.755***	1		
Empathy	-.194**	-.213**	-.332***	1	
Communication competency	-.392***	-.361***	-.476***	.597***	1

* $p<.05$, ** $p<.01$, *** $p<.001$

4. 논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며 상호작용하는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증,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감정표현불능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평균 이하였고, 하부 항목인 정서자각 곤란과 정서표현 곤란의 점수가 낮았다.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표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타인과의 소통 자체가 부재하는 등의 인지·정서적 장애를 경험한다[15].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표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타인과의 소통 자체가 부재하는 등의 인지·정서적 장애를 경험한다[15].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 초래되는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16], Quinton과

Wagner[17]는 충동적 성향을 포함하는 충동 조절 문제들의 기저에도 정서표현 결핍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정서 단어를 적게 사용하고 사용하는 어휘도 다양하지 않았다[18]. 자신의 감정을 알아내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므로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력을 키우는 것이 요구된다[19].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2.8점이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타인의 정서를 관찰했을 때 갖게 되는 정서적 공감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20], 본 연구에서도 4개 집단으로 나눈 세대 연령에서 공감능력은 2.7점에서 3점 사이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인을 공감하기 전에 자극이나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21] 노화와 관련된 변연계의 변화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공감능력의 저하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지역사회 보건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3점이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대별 의사소통도 변화되는데 2030 세대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7].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감정, 의도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하며 동시에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도 잘 파악해야 한다[22]. 즉, 자기공감과 타인공감이 소통에서 중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감정표현불능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Mattila 등[23]은 30세에서 80세 이상의 6개 집단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정표현불능에 대한 총점과 하위 요인 수준도 증가하여 나이와 감정표현불능이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24]. 연령에 따른 변화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감정표현불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Park[25]이 제시한 바와 같이 식민지/전쟁체험 세대, 산업화/민주화 세대, 탈냉전/정보화 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감정표현불능을 살펴보기를 제안한다[24].

본 연구에서는 학력은 감정표현불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졸 이상인 경우가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감정표현불능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감정표현불능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므로[25]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하여 감정표현불능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감정표현불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해 감정표현불능이 높았다. 노화로 인한 신체건강의 변화를 감정표현불능 증가와 연관시키는 연구들도 있으므로[26]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비교분석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라 감정표현불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주관적 대인관계가 높은 경우에 비해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감정표현불능이 높았다. 최근 연구에서 개인주의 문화를 선호하는 2030 세대가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한 5060 세대보다 감정표현불능이 높았는데[27] 세대와 문화를 고려한 감정표현불능 수준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접근과 관리가 생애주기별 발달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이었으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이었다. 감정표현불능증은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결함과도 관련이 있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22]. 선행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절단점이 제시되고 있으므로[28] 이를 지표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일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감정표현불능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도구를 이용한 추가적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한 후 지역사회 맞춤형 세대 간 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감정표현불능은 평균 이하였고,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이상이었다. 대상자의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대인관계에 따라 감정표현불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감정표현불능은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음의 상관이었으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pecial Act on Support for Population Declining Areas, (2023)
Available from: <https://www.mois.go.kr/ft/sub/a06/b06/populationDeclineLaw/screen.do>
- [2] OECD 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2022)
Available from: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7/view.do?seq=301 Accessed 20 May, 2023.
- [3] C. S. Ha, J.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terpersonal anxie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uman Studies*, (2012), No.22, pp.173-198.
UCI: G704-001738.2012..22.002
- [4] G. J. Taylor, R. M. Bagby, J. D. Parker, The alexithymia construct: a potential paradigm for psychosomatic medicine, *Psychosomatics*, (1991), Vol.32, No.2, pp.153-164.
DOI: [https://doi.org/10.1016/S0033-3182\(91\)72086-0](https://doi.org/10.1016/S0033-3182(91)72086-0)
- [5] G. Adams, H. R. Markus, Toward a conception of culture suitable for a social psychology of culture,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ultur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 pp.335-360.
Available from: <https://psycnet.apa.org/record/2003-88101-014>
- [6] J. Dere, C. F. Falk, A. G. Ryder, Unpacking cultural differences in alexithymia: The role of cultural values among EuroCanadian and Chinese-Canadian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12), Vol.43, No.8, pp.1297-1312.
DOI: <https://doi.org/10.1177/0022022111430254>
- [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7480.html, May 14 (2008)
- [8] H. J. Kim, D. H. Lee, Cultural self-construal and characteristic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Koreans in different age group,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21), Vol.60, No.3, pp.455-480.
DOI: <http://doi.org/10.22418/JSS.2021.12.60.3.455>
- [9] I. Hühnel, M. Fölster, K. Werheid, U. Hess, Empathic reactions of younger and older adults: No age related decline in affective respo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14), Vol.50, pp.136-143.
DOI: <https://doi.org/10.1016/j.jesp.2013.09.011>

- [10] S. Baron-Cohen, S. Wheelwright,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04), Vol.34, No.2, pp.163-175.
DOI: <https://doi.org/10.1023/b:jadd.0000022607.19833.00>.
- [11] S. J. Yun, J. E. Shin, T. H. Lee, A study of factor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9), Vol.27, No.4, pp.380-388.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9.27.4.380>
- [12] J. Y. Yeo,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mpathy quotient-short for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 Vol.13, No.11, pp.356-536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11.5356>
- [13] R. B. Rubin, M. M. Martin,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994), Vol.11, No.1, pp.33-44.
DOI: <https://doi.org/10.1080/08824099409359938>
- [14] K.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 Vol.47, No.6, pp.380-408.
UCI: G704-000203.2003.47.6.003
- [15] G. J. Taylor, D. Ryan, R. M. Bagby, Toward the development of a new self-report alexithymia scale, *Psychother Psychosom*, (1985), Vol.44, pp.191-199.
DOI: <https://doi.org/10.1159/000287912>
- [16] G. Zimmermann, J. Rossier, Franz Meyer de Stadelhofen, F. Gaillard, Alexithymia Assessment and Relations with Dimensions of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005), Vol.21, No.1, pp.23-33.
DOI: <https://doi.org/10.1027/1015-5759.21.1.23>
- [17] S. Quinton, H. L. Wagner, Alexithymia,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ating attitud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05), Vol.38, No.5, pp.1163-1173.
DOI: <https://doi.org/10.1016/j.paid.2004.07.013>Get rights and content
- [18] C. Welding, D. Samur, Language processing in alexithymia, *Alexithymia: Advances in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90-104, (2018)
- [19] M. Rosenberg,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 3rd edition*, (2015)
- [20] J. N. Beadle, A. H. Sheehan, B. Dahlben, A. H. Gutches, Aging, empathy, and prosocialit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2015), Vol.70, No.2, pp.213-222.
DOI: <https://doi.org/10.1093/geronb/gbt091>
- [21] M. Ziaei, L. Oestreich, J. Persson, D. C. Reutens, N. C. Ebner, Neural correlates of affective empathy in aging: A multimodal imaging and multivariate approach: Abbreviated title: Multimodal and multivariate approach to empathy, *Aging, Neuropsychology, and Cognition*, (2022), Vol.29, No.3, pp.577-598.
DOI: <https://doi.org/10.1080/13825585.2022.2036684>
- [22] J. W. Kim, *Inner Communication, Influential*, (2023)
- [23] A. K. Mattila, J. K. Salminen, T. Nummi, M. Joukamaa, Age is strongly associated with alexithymia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006), Vol.61, No.5, pp.629-635.
DOI: <https://doi.org/10.1016/j.jpsychores.2006.04.013>
- [24] J. H. Park, Discourse on the Generational Labels and Generation Conflicts in Korea, *Economy and Society*, (2009), No.81, pp.10-34.
- [25] J. K. Salminen, S. Saarijärvi, E. Äärelä, T. Toikka, J. Kauhanen, Prevalence of alexithymia and its association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Finland,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99), Vol.46, No.1, pp.75-82.
DOI: [https://doi.org/10.1016/S0022-3999\(98\)00053-1](https://doi.org/10.1016/S0022-3999(98)00053-1)
- [26] S. Paradiso, J. G. Vaidya, L. M. McCormick, A. Jones, R. G. Robinson, Aging and alexithymia: Association with reduced right rostral cingulate volum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08), Vol.16, No.9, pp.760-

769.

DOI: <https://doi.org/10.1097/JGP.0b013e31817e73b0>

[27] S. Y. Kwon, C. Y. Roh, D. H. Lee, S. B. Cho, A comparison of the levels of alexithymia between young and the middle aged adults using TAS-20K,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0), Vol.28, No.3, pp.601-622.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9.27.4.380>

[28] J. D. Parker, K. V. Keefer, G. J. Taylor, R. M. Bagby, Latent structure of the alexithymia construct: A taxometric investig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2008), Vol.20, No.4, pp.385-396.

DOI: <https://doi.org/10.1037/a0014262>